

2022

하양 Festival

드리미학교 4기 정선양
신앙과 배움, 삶과 공동체를 빛다.

Dreamy School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고린도후서 4장 16절 -

나의 삶의 주인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웁니다."



빛음 소감문

나에게 빛음은 적응하고 변화하는 시기였다.

힘들었다. 나름대로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할 것,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가 성장을 이루고 변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빛음은 단순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해야 할 것들과 올바른 삶의 방향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다. 즐겁기도 했고 감동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기쁘기도 했다.

그리고 나에게 빛음은,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고,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시기였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About Me

이름 : 정선양

나이 : 17세

성별 : 남

키 : 170

사는 곳 : 전주시 송천동

생일 : 2006년 02월 10일

가족 관계 : 부모님, 남동생 2명

특징

단 음식을 좋아한다.

독서와 맨몸 운동이 취미이다.

국제 무역가가 꿈이다.

난 드리미 학교에 다니고 있고

4기생이다. 드리미 학교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 학교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였고 지금은

회복하는 단계에 있다.

난 소심하고 내성적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먼저

다가와주면 좋아한다.

사명선언문



동역하는 무역사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동역자가 되고 개도국의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어가는 국제 무역사가 되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께서 남성에게 하신 명령을 지키며 아내를 온 맘 다해 사랑하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이곳에서의 배움과 경험을 간직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던 나로 인하여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갈등 해결사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싸우고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생각을 풀이해서 전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 전도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성경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액션 플랜

국제 무역가가 되기 위해서

- 한달에 한 권씩 무역에 관련된 책을 읽도록 하겠다.
- 매일 스페인어 공부 30분, 영어 공부 1시간, 단어 40개씩을 하겠다.
- 창의 활동으로 언어에 관련된 수업을 하겠다.
- 스페인어권의 외국인과 화상 통화로 30분씩 통화 하겠다.
- 남미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한다.

따뜻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

- 육아와 가정에 관련된 책을 1년에 3권씩 읽고 노트에 정리한다.
- 그릇되고 음란한 여성상을 가져 주님을 거역하는 대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의하고 절제하겠다
- 여자와 남자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결혼이라는 맹세는 이혼으로 깰 수 없음을 알며 결혼과 배우자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지니겠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겠다.
- 매일 설교 말씀이나 신앙 수업을 복습하겠다.
-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매일 갖겠다.
- 3일에 한 번, 성경 필사를 하고 필사한 내용으로 기도 하겠다.

갈등 해결사가 되기 위해서

- 세계 현황에 관한 뉴스들을 꾸준히 읽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
-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빚어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에 관련된 세계사를 창의 활동으로 공부하겠다.
- 심리학을 공부한다.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 한 달에 한 번씩 김선교 선교사님의 설교 내용을 듣고 에세이를 쓴다.
- 성경 말씀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읽어서 한 권을 두 달씩 깊이 생각하면서 읽겠다.
- 전달력있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화술을 공부한다.

목차

- 01. 사명 선언문
- 02. 언어 빛음
- 03. 신앙 에세이
- 04. 정의 에세이
- 05. 타임 엔지니어링
- 06. 공동 성결서약문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 07. 성결 에세이
- 08. 정직 에세이
- 09. 평화 에세이
- 10. 지역 인물 인터뷰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 11. 3P창의활동 계획서
- 12. 빛음 2단계 소감문
- 13. 미리쓰는 '나는 배웠다'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 JOHN 3:15 -

I. 언어 빛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나의 형제와 자매를 해치고 상처 입히고 벼랑 끝으로 몰리게 하려는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언어 능력을 사용하고 또 선한 말을 하여 다른 사람이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나의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야 한다. 얼마나 긴 시간동안 선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그릇된 방식으로 나의 입술을 망쳤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물들은 나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실 것이다. 하지만 이 수업을 들음으로써 나쁜 말을 하는 습관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 내 수 많은 잘못된 언어 습관을 고치는데 가장 도움이 컸던 개념은 상대방이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방법이다. 나도 모르게 상처주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고 또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엄청난 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며 말을 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고 내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는지 적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배웠다. 나 자신이 평소 어떻게 말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또 하나의 방법은 언어와 단어의 기원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죄와 함께하고 중독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동안에는 의미조차 모르는 단어를 막 내뱉었다. 잘못된 행동인지는 알았지만 심각하고 중요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니까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사용했다.

이 수업에 그동안 사용했던 단어들의 기원과 뜻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날 얼마나 저급하게 바라 보셨을까 하는 생각과 하나님을 향한 죄송함이 솟구쳤다. 이날 이후로 어느샌가 부터 마음속으로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나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는 것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나의 입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나의 입을 그릇되고 저급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던 과거의 날들을 후회하고 반성하였고 점점 듣기 편안하고 좋은 말들, 때로는 날카롭지만 자극이 되고 힘을 실어 주는 말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말들, 즉 기도를 하고 있다.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고 말할 때에도 부드럽게 말이 나온다. 이제는 언어와 말의 소중함과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안다. 또 크리스천 리더로서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내 입에서 더이상의 욕설과 저급한 단어들과 그 외 모든 언어적으로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고 않게 할 것이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나의 입을 사용할 것이며 내 혀와 입술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는 말들이 나오게 하겠다.

*SET A GUARD OVER MY MOUTH, LORD;
KEEP WATCH OVER THE DOOR OF MY LIPS.*

- PSALMS 141:3 -

II. 신앙 에세이

우선 김선교 선교사님을 통한 변화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다. 선교사님의 설교 말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헌신에 관련된 내용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으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게 된다. 그 여자는 호세아 몰래 불륜을 저질렀고 아이를 셋이나 임신하게 된다. 그때마다 호세아는 그 여자를 용서하니 그 수가 세번이다. 그 외에도 고멜은 입으로 담기도 어려운 추악한 짓들을 저지른다. 그럼에도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헌신이란 자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넘긴 것으로서 그 상대가 무엇을 시키면 망설이지 말고 무조건 행해야 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난 그리스도인은 이런 어렵고 힘들고 화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죄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인줄 알았다. 헌신하는 대상이 내가 아닌 헌신 받아야 할 주님이셨고, 헌신 받는 이는 주님께 헌신해야 할 나였다. 이야기에서 내 역할이 호세아인 줄 알았다. 그러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역할은 호세아가 아닌 그 여인이었다. 후의 내용은 이러하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조용히 부르셨고 곁에 앉으셔서 호세아에게 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느냐?” 그는 말 없이 끄덕였다고 한다. 하나님은 날 계속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동안 난 고멜과 같이 살아왔다. 그것을 듣고 나니 머리에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 이날 이후로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난 느낌이었다. 나의 변화는 주님이 가장 잘 아실 것이다. 나의 예전 모습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공백기와 같았으나, 지금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계시는 세상과 같다.

정말 크게 변화했다.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하

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하였고 원하고 있다. 성경적인 의미의 헌신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나도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헌신을 보이셨으면 한다.

이제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기 위한 단계에 들어갔는데, 바로 고난 주간이다. 이때 처음으로 금식도 했다.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던 이유와 오셔서 행하신 사역과 가르침과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의 소망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느낀 점은 십자가의 자리는 사실 내가 달려야 할 자리였고 채찍의 고통은 나의 몫이었다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죄의 영적 유전을 물려받았다고 복음 특강에서 배웠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버린 하와는 자신의 위에 있으신 하나님을 감히 없애 버리려 한 것이다. 주님이 에덴에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으나 단 한가지만 금하셨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다.

즉,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편안함이 누구에게서 비롯되었고 누가 주었는지만 알고 있으라는 명령 단 한가지만 하셨다. 사실 지키기 힘들거나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은혜에 비하면 지극히 당연한 명령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자가 되기를, 자신들의 주인이 자신들이 되기를 원했던 우리의 죄 많은 조상 두 명은 그 명령 하나를 지켜지 못해서 죄를 저질렀고 그 죄의 DNA를 우리는, 나는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본질은 선한 것이 맞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현재 모습과 상태는 그리고 그간 저지른 행동들을 보면 지금의 나는 죄인이 확실하다. 내가 주님이 부여해주신 사명과 재능과 은혜와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며, 나의 거룩하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지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고통을 감당하게 하셨다. 나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도 더 굳건히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내가 부활의 소망을 믿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된다.

이때의 금식이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나를 절제하는 경험도 해봐서 좋았다. 죄인임을 깨달아서 슬픔과 후회와 자괴감에 빠져있는 나를 꺼내준 책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집”이다. 이 책은 나의 마음을 여러 방으로 표현해서 나타냈고 그방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내용이었다. 내 마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많은 것을 느꼈고 부끄러웠다. 난 그동안 하나님이 지어주신 나의 방들을 조금도 관리하지 않았다. 나라는 집에 쓰레기만 가득 쌓아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모두 알고 계셨다. 악취가 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방을 그분은 항상 알고 계셨다. 이제서야 깨닫고 치우려고 해도 그것들을 치울 능력이 내게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치워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순식간에 더러운 것들을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신다. 여기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들을 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쓰레기들, 즉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쌓여있는 죄들을 모두 순식간에 치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안심과 위로가 되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청소해 주신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다. 그분 앞에서는 솔직하자는 다짐을 했다. 또, 죄가 있는데 솔직해지면 심판을 받는 것이 예정 되어있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치워야 하는데 나로서는 불가능하니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오직 예수님 뿐만이 나의 죄를 치워줄 수 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진정으로 바라신다. 내 마음이 정결해져서 그분을 내 마음 속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다짐을 하고 나서安心은 됐으나 계속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계속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그리고 내가 받게 될 벌과 고통이 두려워서 조금씩이지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였다. 그때 인상 깊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천정은 자매님의 간증이다. 천정은 자매님의 간증에 비하면 내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은 다 아기의

짜증 정도였다. 병으로 인한 고통을 그만큼 당하셨으면 믿음을 잃으실만도 한데 끝까지, 오히려 더 세게 믿으셨고 전도를 하셨다는 것이 참 존경스럽다. 나의 고통은 하나님이 날 믿으신다는 증거이다. 악마들은 날 타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날 믿으신다. 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뢰하신다. 고통과 시련은 믿음의 시험인 것이다. ‘이렇게 아파도 나 믿을래?’하고 물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은 괴로우나 기쁘다. 또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고통만 주신다. 고통을 이겨낼 힘을 성경 말씀으로 부터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고통만 받고 그로 인한 결과가 죽음일지라도 두려워 하거나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시련을 당하는 것과 이겨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그 끝이 죽음인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고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간증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는데 도움을 줬다. 오히려 시련과 피곤을 감사하게 여기고 있다. 특히 이 학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 때가 많았다. 그럴때 마다 기억하고 떠올린 것은 이 간증이였다. 항상 치열하게 살 것이다. 모든 하루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최대한 휴식 없이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고 천국에 가서 휴식을 가지려고 한다.

사실 세상에는 휴식이 없고 있다고 해도 그다지 만족스러운 휴식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데 과연 쉬엄쉬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더 큰 무언가를 명하시는 분이니 여유있게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독기와 열정과 의지가 날 편하게 할 것이다. 신앙심과 복음, 의지, 그리고 십자가의 소망 또한 나에게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난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기꺼이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 학교에 있다. 부디 내가 이곳에서의 믿음의 훈련을 잘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인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III. 정의 에세이

지금부터 내가 이곳에서 배운 정의에 관한 내용을 쓰도록 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 중 세가지 정도를 활용하려고 한다. 먼저 콜버그의 도덕발달 이론에 대하여 글을 쓰려고 한다. 내가 이곳에서 도덕적인 수준을 꽤 많이 높였다고 느끼고 있고, 그것에 큰 도움을 준 것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이 콜버그의 발달이론이기 때문이다. 먼저 콜버그는 단계별로 도덕의 수준을 정하였다. 가장 낮은 1단계는 자신이 받게될 처벌만 고려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자신이 얻게될 이익과 손해를 생각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쓰는 단계이고 4단계는 법과 질서에 따라 행동하는 단계이다. 5단계는 더 나아가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단계이고 가장 높은 6단계는 자신의 양심을 토대로 한 윤리적인 이유를 생각하는 단계이다. 그동안 나는 상황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의 도덕 수준은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낮지도 않고 절대 높지도 않은 애매한 수준이다. 그래서 인지 별로 도덕 수준을 높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남이 날 어떻게 신경쓰는지가 불편해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돌려서 말하고는 했다. 그러니까 안한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이 너무 신경쓰여서 못한 것이다. 마음은 사실 저것을 어기거나 빼앗거나 이미 죄를 지은 상태였다. 단지, 남들이 날 나쁘게 바라볼까봐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것이지, 절대 나의 도덕 수준이 높아서 그런건 아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달이지만 많은것을 배우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꿈의 크기, 복음, 헌신, 믿음, 하나님의 사랑, 기독교 교육, 리더의 자질, 말씀 암송, 시련의 의미 등등) 느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도덕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생활하는데 내가 계속 낮은 수준의 도덕관을 지니고 있다면, 좀 과장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곳에서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난 더 높은 수준의 도덕관을 지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알아갈 때에 성취감과 만족감 등을 느끼기 위해서. 더 바르게 하나님

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려면 성경을 읽으면 한된다고 생각한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들과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와있다. 인간의 권리와 가치를 생각하며, 나의 윤리의식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그에 반대되게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중에 5차원에 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않은 것은 좋은데 하라고 한 것들도 좀 하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도덕 수준을 높혀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리더가 되고 싶고 또 나의 도덕 가치관의 수준을 높이고 싶어서 그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한다.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글을 이어쓰려고 한다. 정의는 구원 받은자의 증표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것을 믿는다면 정의를 행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들은것 같다. 정의는 간단하게 내 주위의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힘든 사람들’은 굶주리는 사람,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 마음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 믿음과 복음이 없는 사람, 희망과 사랑이 없는 사람,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 잘못된 신앙을 믿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 등등 모든 종류의 고통을 받고 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다. 정의의 실현은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의 그 자체이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자신이 남들을 치유하고 도왔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람인양 떠돌고 다니면 굉장한 오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음으로써 정의를 알고 쓰임을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릴 통하여서 세상에 정의를 실현시키시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의가 믿는자, 구원 받은자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정의를 실현시키기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반대는 정의를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시킬 수 있다. 성경 속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정의를 실현시키기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고 배우기 까지의 과정이 어렵지, 행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생활이 힘들 것 같다. 일단 정말 열심히 성경 읽어야 하고 생각도 많이 해야하니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

끼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지 못하시고 않으실 것이다.) 만일 정의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면, 다시 성경을 읽으라고 말해주고 싶다. 성경 어느 구절 몇장 몇절에 니가 힘들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든 너를 사용하려고 하시든 다 무시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라고 나와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내 룸메이트 형 중에 한명이 '우리는 하나님이 불에 들어가라 하시면 불에 들어가야 하고 얼음바다에 들어가라 하면 또 그렇게 해야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힘들음과 정신적인 힘들음은 지옥불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세상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것에 무너져서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100km 행군해야 한다.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정의를 실현시키는 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것이 맞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 성경에서 기독교인이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라고 나와있었던것 같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르면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하거나 주저할 이유가 없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면 난 구원 받은것이 아니고 믿지도 않는 것이다. 굳이 이런것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하여도 단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다.

다음은 희년과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내가 성경을 읽어서 알게된 희년은 7년씩 7번 일하고 50년째 되는 해에 맞이하는 해이다. 그때는 모든 노동이 중단되고 밭과 사람은 쉬어야 하며, 노예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며 형제와 이웃의 빚을 독촉하는 것이 금지되는 해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거룩한 해인 것이다. 내가 이 수업을 듣고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세상에서 흠으로 빚어진 몸으로 있을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힘들고 불편함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는 신성한 노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성경에서는 희년을 맞이할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고 그 후에 맞이하는 해가 희년이라고 나와있다. 어차피 회장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 오늘 오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 어떤 동기가 '그

럼 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을거냐' 이런식으로 되물은 적이 있었다.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을 하였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고맙다 범준아) 나도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내 두 눈으로 만나뵙고 싶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날 만나주는 것도 정말 뜻깊고 의미있는 일이겠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고 지금으로부터 83년 정도 후에 5차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어차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굳이 내 두 눈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할까.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려고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들을 시간 낭비나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의도는 전혀 없다. 단지, 어차피 만나 뵙게될 것이 확실한데 그럴시간에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하고, 성경말씀 하나라도, 기도 10초라도 더 드리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희년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즉,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언제 희년을 맞이할지는 나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뵙게 되는 날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만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것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른것 다 제쳐두고 그것만 위해서 시간을 쓸 필요가 없는 이유 중 하나인것 같다. 어쨌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희년을 기다리거나 기대하기 보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우릴 위해 준비해 놓으신 희년을 기다리며 내 몸과 마음과 열과 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노동을 최선을 다하여 하는 것이 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 모든 생각이 타임 엔지니어링 강의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크리스천 리더는 이 세상에서의 휴식은 기대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서 쉴 생각으로 계속 일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희년에 관련된 생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넘어가겠다. 그냥 내가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완벽하게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이 글을 쓴다는 생각으로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다. 어쨌든 내가 수업에서 알게된 예수님의 가르침 보다는 내가 수업에서 배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실 수 있으시고 그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며,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등돌리고 욕을 하여도 예수님 만큼은 우리 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거룩한 변호인 되시는 분이며, 인간의 기준에 선과 악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이제 수업에서 배운 예수님의 모습을 살폈으니 이제서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삼위일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것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디 이 잔을 다른 이에게 돌리시 돼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라고 마가복음 16:33-36에서 기도를 하신 적이 있으시다.

예수님이 두려워한 까닭이 채찍과 못의 고통이 원인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두려움이였었다는 것을 수업에서 배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보단 우리 눈에 보이는 이익과 손해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인식하고 계셨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우릴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여인을 보호하시는 성경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침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간음을 저지른 여인을 끌고와 우리가 이 여인을 도로 쳐 죽일 것을 예수님께 고한다. 예수님은 그들의 앞을 막아서 서시고, 그들 중에 단 한번도, 심지어 마음 속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한 적이 없는 자만 이 여자를 도로 쳐라 라고 하시고 그들 중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였다. 이 성경 구절에서는 우릴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다른 이들이 나의 죄를 정죄하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릴 보호하신다.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의 죄로 마음 아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구절에서 나는 인간의 오만함과 예수님의 신실함도 느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게 태어난 죄인들이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시는지 지키시는지 시험하려고 일부러 여인을 끌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또한 마음에 악함이 있으면서, 그런 주제에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 죄에 따른 심판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겸손해지자는 마음을 다잡게 되는 또 하나의 시간이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나타내는 또다른 이야기가 있다. 회당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시는지 지켜보려고 예수님에게서 눈길을 때지 않았다. 마침 그곳에 손이 마른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치유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 즉 선을 행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였다. 그들이 지키는 율법은 안식일에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조건 행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다. 그것에 따르지 않는자를 죄인으로 분류할 만큼 엄격하

게 지켜할 내용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선악의 기준을 뛰어 넘으신 분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니라 원리와 원칙이 있고 쓸데없는 세상의 규칙이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 사실 안심과 의지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면 성경적으로 정의롭게 살기란 굉장히 어려운 것 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유혹 받을때도 있을 것이고 지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위에서 난 왜 그런 다짐들을 하였는가?. 정의로운 삶은 어려운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말이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편하게 악하게 살건지, 정의롭게 힘들게 살 것인지 중에 선택해야 한다. 중간은 없다. 편하려면 악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성경에서는 금한 것을 하게되는 것을 포함해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의롭게 살지 않으면 악하게 사는 것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단순히 죄를 저지르기 싫은 마음을 넘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남겨두신 발자취를 따라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존재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내게는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을 명칭하는 단어로 알고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그러면 정의롭게 살아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난 내가 그리스도인 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려고 한다.

*IN THE SAME WAY, FAITH BY ITSELF,
IF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S DEAD."*

- JAMES 2:17 -



IV. 절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

내 삶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1. 귀찮음을 절제하지 못해서 해야 할 일을 미룬다.
2. 해야 할 일보다 하고 싶은 것을 한다.
3. 간식들 중에서 단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다.
4. 잠이 많아서 낭비되는 시간을 많다.

빛음 활동 중 절제하고 균형잡힌 삶에 도움이 된 활동

1. 바인더를 통한 계획표 작성
2.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개념
3.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한 수업
4. 타임 엔지니어링에서 미래와 압축성에 대한 내용
5. 나의 본질과 현재 나의 모습에 대해 배우는 수업들에서의 배움

절제하는 삶을 위한 원칙

1. 절제의 유익과 가치를 기억하며 지키기 쉽지 않은 절제의 삶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2.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닌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마음과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자
3. 내가 드리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절제를 행하는 것과 같음을 알자
4.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 할 때 얻는 만족과 기쁨이 나의 원함대로 행했을 때 얻는 일시적이고 조잡한 쾌락보다 가치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5. 절제를 할 때 나 자신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임을 느낀다는 것을 알자

V. 타임 엔지니어링 소감문

공간과 시간의 개념에 대한 강의를 듣기는 이제 처음이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그냥 엄청난 내용이구나 하고 들었는데 점점 내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놀라움과 변화들이 느껴졌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사람들의 관계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생겼으며 미래를 확실히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시간보다 날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확실하게 개념을 머리 속에 넣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선 인생을 간단하게 살려는 생각을 버렸다. 난 주님의 쓰임을 받아 이곳에 오게 되었고 주님의 쓰임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4차원적이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 말도 안되고 멍청하다고 욕을 먹으며 잘하고 있구나 안심하는 크리스천 리더가 되겠다. 내 머릿속을 온통 말도 안되는 것 처럼 보이고 엄청난 것들로 채우겠다. 목표를 할 수 있는 것 보다 크게 잡겠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피를 토할 때 까지 일하고 아파하고 고생하고 기절하다가 예배와 기도로 다시 일어나서 또 일하고 쓰러지다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나의 사명을 이루고 하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이자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나의 소원이다. 나의 미래를 굉장히 크게 그렸다. 대표적으로, 나의 직원 중 한 명에게 30억 현금을 여러 대의 슈퍼카 나눠 실어서 그 직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고급 주택까지 지어줄 것이다.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는 어떤 경건한 부자는 가난해서 반지하에 살 때에 10억 현금을 지게차로 퍼서 주는 퍼포먼스를 보이겠다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였고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실현시키고 있다. 반지하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난 드리미 학교에 있고 세상은 더 변할 테니까 이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하늘 나라의 모습도 배웠다. 그런 하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재물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편하게 사용하시려면 물질적으로 걱정을 하면 안된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의사가 되면 의료 선교를 할 수 있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면 그 선교지에 병원을 지어줄 수 있다. 섬김의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 하는 것이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을 모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낮은 곳으로 가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 나의 목표를 실현하려면 낮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게 시작이기 때문이다. 낮은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배웠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하고 피하려 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다. 사람들이 실업 문제로 걱정할 때 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크리스천 리더가 4차원인 이유다. 보통 리더가 하는 일들을 떠올리면 뭔가 엄청나고 복잡하며 관심을 많이 받는 일들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난 그와 반대로 아무도 몰라주고 심지어 무시하는 곳으로 가서 일하라고 배웠다. 이 일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무너질 때도 있을거고 치열하게만 살다 보면 지칠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훈련을 이곳에서 하려 한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내가 이룬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룬것이 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며 모두가 불가능하고 무시했던 일들을 이루게 되도록 할 것이다.

VI.2022 프리미학교 성결서약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대를 본 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고자, 이 성결서약식에 참여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레 11:45)’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자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의 영혼과 몸, 성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와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둘,

나와 더불어 타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귀한 존재임을
믿고 불건전한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

사람의 영혼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이성 간의 육체
적 접촉을 절제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의 몸과 마음을 지
켜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넷,

성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에 의해 성적 관계를 맺
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나와 타인은 누군가의 배우자이자 부모가 될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성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성이 왜곡되어 표현된 포르노 영상이나 도서, 웹툰 등의 음란한 매체를 보지 않을 것이며 만들거나, 유포, 공유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곱,
성매매나, 유사 성매매, 성폭력 등의 성적 범죄에 조금이라도 가담하지 않으며 성을 파는 일과 사는 일도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덟,
결혼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맺을 것이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여 상호 간의 대화와 합의로 이루어진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홉,
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신의 몸과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균형있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열,
성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결혼이라고 하는 안전하고도 성경적인 제도를 신성히 여기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짐하는 바이며, 하나님과 부모님, 선생님들과 동료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2022년 5월 4일 드리미학교 4기생 정선양.

VII. 성결 에세이

세번째 가치인 성결함을 배웠다. 처음 배운 가치인 정의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정의처럼 생각 뿐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는 가치가 성결이다. 이제 학교에서 배운 성결함에 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다. 성결함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며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을 위하는 모든 것이 성결에 포함된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시 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반대로 성결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결한 곳이다. 성결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관한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함으로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성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은 어느 가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없음으로 오직 기도와 간구로만 구할 수 있다. 성결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를 욕되게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것이 지키기 힘든 것임을 알면서도 성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성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성결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첫번째, '하나님에 대한 성결' 이다. 레위기 20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릴 택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기로 결정하셨고 구별 짓기로 결정하셨다고 나와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야 건강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dna를 주셨고 인간 자체를 그렇게 만드셨다. 사실 거룩함과 성결함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성결함을 지키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위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닮아 사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다 그분께 맡기고

기뻐하며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성결함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다. 물론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성결을 지키는 방법과 내용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에 대한 성결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가장 먼저인 것 같다. 또 내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두번째, ‘내 몸에 대한 성결’을 지켜야 한다. 로마서 12장 1절에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는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뜻은 나의 몸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다. 몸이 보이고 만져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므로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이 몸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몸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미의 기준에 합당한 몸매와 외모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 몸을 게으른데 쓰지 않고 부지런하며 신체를 선하게 쓰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며, 이것이 "육체에 대한 성결함"이다. 누워서 티비나 유튜브만 계속 보고 패스트 푸드를 먹고 또 조금의 자기 관리도 하지 않는 것은 성결함과 거리가 멀고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는 것도 성결함과 거리가 멀다. 아담이 아직 에덴에 있을 때에 하와를 보자마자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주님은 우리의 ‘몸’ 자체를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자신의 몸을 보고 감탄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여러명인 것 또한 성결하지 않다. 또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 축복을 누리면서 자신의 신체를 감사하고 소중히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성결한 삶이다.

세번째는 ‘생각에 대한 성결’에 관한 내용이다. 고린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육은 겉으로 보이기에 다 드러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질병으로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 겉으로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신체적인 측면들이나 말하는 내용들에서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생각은 알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지 다 알고 계신다. 생각은 악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 조용한 척, 성실한 척,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은 생각이 성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악한 생각도 죄라고 하셨다. 성경은 분노를 품은 자마다 살인할 자가 아닌 살인한 자라고 하였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할 가능성이 있는 자가 아닌 간음을 저지른 자라고 하였다. 그래서 겉보기에 착하고 칭찬 많이 받는 사

람들을 주의해야 한다. 의심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믿지 말라는 뜻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생각에 대한 성결함을 지키는 방법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하였다. 착한 생각, 좋은 생각, '성결한 생각'을 암만 머리속에서 하고 있어도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은 비교적 쉬워서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행하기는 어려워서 하는 사람이 적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기독교인은 적다. 마지막 네번째는 '행동에 대한 성결'이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이런 것'은 뒤에 나와있는 것들이다. "이런 것", 즉 행동이 성결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을 함을 의미한다.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성결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내용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또한 성결한 행동을 의미할 수 있다.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계속 돌아보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 밖에 없다. 태도, 말, 삶의 패턴 등이 행동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필수 가치 중 하나이며 그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갖추기 까지의 과정은 어렵겠지만 일단 성결함에 의한 기쁨을 느끼고 나면 성결하게 살려고 힘써 노력하지 않을까? 성결해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모두 성결하자.

COME, LET US RETURN TO THE LORD.
HE HAS TORN US TO PIECES BUT HE WILL
HEAL US; HE HAS INJURED US BUT HE
WILL BIND UP OUR WOUNDS.

- HOSEA 6:1 -

VIII. 정직 에세이

〈우리의 기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의 교만함, 내 안의 천박함, 내 안의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정직한 사람의 기도〉

제 모든 민낯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논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제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려 합니다. 제가 더러운 죄인임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매 순간마다 당신을 떠났었음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히고 있었음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제 안에 들어오려 하시는 주님을 거부한 죄인이 저임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걱정과 불안과 게으름을 떨치지 못하고 그것들과 어울리려 하는 맹인이 저임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것으로 은혜의 나날들을 낭비하는 자가 바로 저임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아닌척, 모르는척 꾸미기에만 바쁜 저의 모습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3년을 외로움과 게으름에 스스로를 가두고 확대한 바보임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이 학교에 와서도 제 자신과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 사람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제 자신임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제가 믿음을 행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음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불쌍한 짐승들만 죽이고 다시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저였음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이가 저임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제 스

스로를 괴롭게 하는 감정들 떨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잡고 떠올리느라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순간이 제 인생의 전부임을 당신께서 이미 아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당신께서 날 포기하지 않으심을 압니다. 당신이 그 긴 시간을 저를 위해 기다리셨으며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이제는 압니다. 나약한 제가 아닌 강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별이 아닌 시험과 치유임을 이제는 압니다. 이런 저마저 사랑하시는 그 분이 있기에 희망이 있음을 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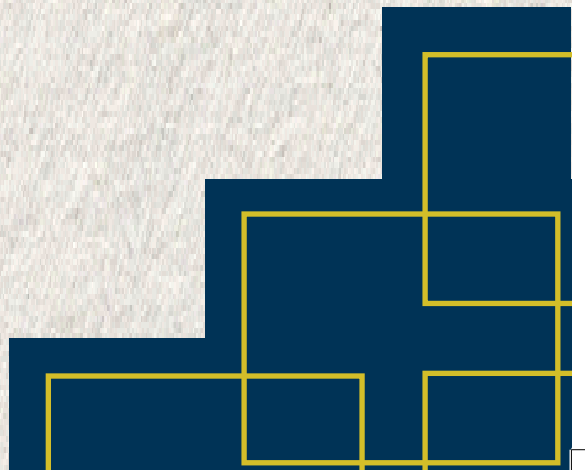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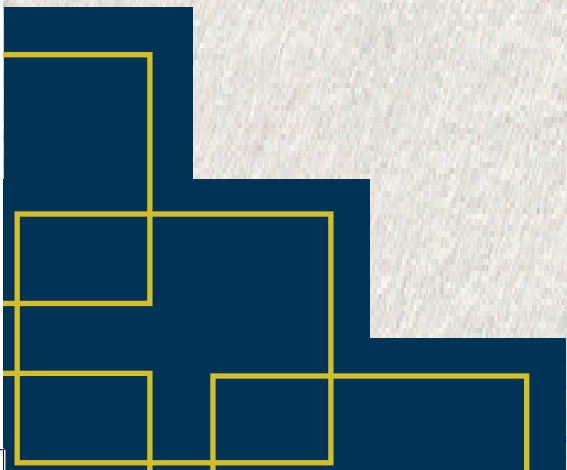
나약함과 거짓, 모순 그 자체인 저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당신이 의심됩니다. 이 글을 쓰는 그 순간에도 낙심하고 상처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당신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사용하시렵니까? 믿음 좋고 재능 있고 최소한 저보다는 하나님 바라보려 하는 사람들 대신에 꼭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왜 저를 훈련시키십니까? 왜 저를 이 학교에 부르셨습니까? 왜 하필 절 택하셨습니까?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직까지 의심하고 돌아서는 절 정말로 사용 하시렵니까... 저는 엄청 불평 할 것 입니다. 돌아설 것 입니다. 낙심하고 아파할 것 입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전히 저를 기다리시겠지요. 주님께서서는 저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니 오히려 더 아파하시는 하늘 아버지 이시니까요. 그러면서도 절 사용하려 하신다면, 제가 걱정하고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 두 렵돈의 가사가 제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원망 하다가도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낙심해도 다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과거의 저를 죽이고 다시 태어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맹세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 걷겠습니다. 얼룩진 제가 십자가의 길을 더럽힐까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때 당신이 절 이 학교에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믿습니다. 당신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을 위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금과 은과 놋쇠와 향과 보석과 천들을 제게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막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남들 보기엔 초라할지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막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 눈이 감겨 그것들을 보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심지어는 정말 그것들을 받았는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장 정직하신 분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정직한 태도를 허락해 주세요. 제 눈으로 바라봤을 때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빚으신 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게 주어진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직의 참된 의미가 위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면 저는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정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해 주세요. 결국 제가 돌아갈 곳이 주님 뿐입니다. 실컷 거짓말 하고 돌아서고 괜찮다고 스스로 위로하다가 더러워진 절 보고 이제는 깨닫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 더러운 모습으로 당신께로 돌아옵니다. 꾸며지고 보기에 좋은 거짓 모습이 아닌 못나더라도 정직한 내면을 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AMEN〉

BUT THE LORD SAID TO SAMUEL, "DO NOT CONSIDER HIS APPEARANCE OR HIS HEIGHT, FOR I HAVE REJECTED HIM. THE LORD DOES NOT LOOK AT THE THINGS PEOPLE LOOK AT. PEOPLE LOOK AT THE OUTWARD APPEARANCE, BUT THE LORD LOOKS AT THE HEART."

— 1 SAMUEL 16:7 —



IX. 평화 에세이

평화는 헌신과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 같다. 어찌보면 사랑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없으면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희생으로 평화를 이루셨다. 이 세상은 아직 폭력 그 자체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는 관계를 동반한다. 나와 다른 이들이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내어주고 희생해야만 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평화일까? 남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것이 평화라고 불릴 수 있을까? 십자가의 고통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예수님께는 과연 평화였을까? 나를 위함이 아닌, 다른 이를 위해 나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평화라고 생각한다.

내 입장과 이익만 고려하고 행동하면 폭력이 행해질 수밖에 없다. 폭력은 평화가 깨졌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마귀에게 패배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게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그래서 어떻게든 평화를 깨고 폭력을 행하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다. 평화를 통해 우린 서로 사랑하며 하나되고 성장할 수 있다.

평화가 여유롭고 따뜻하며 쉽고 안전한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정한 상황과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다. 아무래도 반대 개념인 폭력을 떠올리면 시끄럽고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롭다고해서 열정을 잃어서는 안 된다. 평화와 나태, 게으름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다. 애초에 내어주고 희생하는데 안전하고 쉽기만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폭력적인 상태보다 더 까다로운 것들을 요구할 것이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움직이고 행동해야 한다. 마귀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서겠다는 다짐과 각오가 필요한게 평화이다.

평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기도 하다. 평화로우면 폭력과 다툼과 미움과 분노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평화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전하신 명령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 또한 평화가 어려운 이유이다. 신약을 많이 읽은 사람이면 알 것이다. 시련이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고, 우리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많이 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분노한 죄인에게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다. 가진 재산을 모두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은 욕심 많은 죄인에게 어려운 명령이다. 눈이 음욕을 품게하고 손이 음란함을 행하게 하면, 눈은 뽑고 손은 자르라는 명령은 간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죄인에게 어려운 명령이다. 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라는 명령은 이기적인 죄인에게 어려운 명령이다. 친구를 사랑하고 남편을 따르고 아내를 섬기라는 명령은 ‘폭력’의 자녀인 죄인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이다. 이 모든 것의 해답인 평화는 아주 쉬우면서도 어렵다. 그 이유는 희생 때문이다.

희생이 불가능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희생을 보이심으로 평화를 이루셨고 우리 또한 희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희생을 통한 평화는 우리의 의무요 우리를 보호해 주는 허락된 지팡이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 중 평화가 필수이다. 그럼 왜 우리는 평화로울 수 없나? 우리는 우리가 평화롭지 않기로 선택한 줄 착각하고는 한다. 우리가 평화롭지 않은 것이 아닌, 평화롭지 못한 것이고, 그 이유는 매 순간마다 우릴 찾아오는 악마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것이 사람과의 평화이든, 하나님과의 평화이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비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마귀와 어울리는 우릴 보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 알아야 한다.

평화롭지 못해서 아파하는 우릴 보고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헌신과 사랑으로 이루신 평화다.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주님의 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지팡이다.

평화는 인간의 몸으로 높은 하늘에서 낮은 우리에게로 오신 예수님의 섬김이자 희생이다. 우리는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PEACE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 JOHN 16 : 33 -

평화는 무지개 같은 거야 서로의 색을 이해하며 자신만을 뽐
내려 하지 않고 일곱가지 색 모두가 조화를 이뤄 가장 완전한
상태를 만들어 내지. 이 일곱가지 색은 용서와 화해, 평등과
자유, 배려와 오래참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이야.

- 누군가

X. 지역 인물 인터뷰

인터뷰 대상 : 언어발전소 소속 언어재활사 김형무

1. 어떻게 언어재활사의 일을 하게 되셨나요?

: 수능 기간 때 취업이 잘 된다는 지인의 추천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초기에는 단순히 취업 목적으로 선택하게 됐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사명감을 갖고 임하고 있다.

2. 언어재활사를 직업으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어서 그 대상자들의 환경과 상황이 나아지고 그들이 그것에 감사를 표할 때 뿌듯함을 느낀다. 이것이 이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다.

3. 언어 재활을 통해 장애를 극복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사실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미한 뇌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완벽하게 극복, 또는 회복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다. 그래서 보통은 극복 보다는 진전되는 대상자분들이 대부분이다. 바로 전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분들로 부터 작게나마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그 힘으로 연료 삼아서 일을 할 수 있다.”

4. 언어재활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듣기와 끈기가 가장 중요하다. 언어 재활을 받는 대상자들은 의사소통에 문제를 갖고 있다. 즉 서로 의미를 전달하고 받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면 화자와 청자가 둘 다 대화를 포기해 버린다. 재활사는 보통 대상자 분들의 말을 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의사소통의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듣기만 한다고 들리지 않는다.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말을 하듯이 들린다. 그래서 그들의 눈빛과 손짓, 또는 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요구 되는 두 가지가 바로 듣기 능력과 끈기다.”

5. 언어 재활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 초반 대상자 분 또는 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중에 뇌의 절반을 제거하고 오신 분이 계셨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재활 치료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여서 경험이 부족했고 대상자 분의 상황도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다. 그러다가 3~4번 치료를 받고는 더 이상 나오지 않으셨다. 이유를 알기 위해 병원에 연락을 드렸다. 병원으로부터 받은 답은 그 분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그게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 큰 충격이었다.

〈소감문〉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회에서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어른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수업의 목적에 맞게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답변들을 얻으면서 나름대로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인터뷰를 통해 생각보다 꽤 괜찮은 결과물을 얻었다. 준비를 열심히 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질문 준비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삼을 만한 일은 없었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첫번째 시도 때 완전히 창피만 당한 채 해당 기업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점이다. 이로 인한 낙심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정신 차리고 다시 제대로 준비를 했어도 역시 시간이 부족해서 제출 기간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약 22분 정도의 인터뷰 시간과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은 나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

두 번째에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더 확실하게 만들었다. 사이트나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뻔하고 예상가는 답변들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그 한 사람에게서만 들을 수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대상과 그 직업에 관해서 계속 생각하고 해당 직업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수정하며 질문들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나름 진지하게 생각해볼 거리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서는 저번과 달리 질문의 이유와 목적을 적기도 했다. 더욱 확실한 방향성을 갖고 인터뷰에 임할 수 있었다. 준비 과정에서는 확실히 변화가 있었다. 이제 인터뷰를 통해 들은 답변들과 느낀 점들을 적도록 하겠다.

인터뷰를 통해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뿌듯함이라는 것을 느꼈다. 재활사님께서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에게 치료를 받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작게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였을 때 큰 뿌듯함을 느끼셨고 이는 후에 계속 일을 하시면서도 느끼셨다고 한다. 일차적으로는 언어재활사라는 직업에 큰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뿌듯함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다. 도대체 남들을 위해 수고하고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직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후에 나도 뿌듯함을 느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길 소망한다.

XI. 창의회동 계획서

활동명 : 종교와 전쟁, 그리고 인간
팀원 정선양

〈개요〉

“종교의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논리에 맞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이 활동을 시작했다. 많은 종교 전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십자군 전쟁을 선택했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 이유와 그 전쟁을 비판하는 서적을 읽을 것이다. 흔히 ‘종교 전쟁’이라고 칭하는 형태의 전쟁들이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종교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 가능한 용어이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명분이 타당한지에 대해 여러 의견을 공부하고 내 의견도 생각해 본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또한 개종이 목표였으면 폭력을 통한 강요가 아니어야 했다. 이를 통해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의미 있는 청중〉

마음에 미움이 있는 사람들, 평화의 중요성이 궁금한 사람들, 다툼으로 인한 피해를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된 주장의 근거를 하나님에게 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

〈자료〉

십자군 성전과 약탈의 역사

김태권의 십자군 이야기

영화 kingdom of heaven

십자군 전쟁에 관한 책

이 전쟁을 비판하는 내용의 신문 기사, 책, 논문, 영상물 등등의 자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종교를 명분으로 하는 전쟁들의 사례
반대로 서로 다른 종교가 화합했던 사례와 그로 인한 이익
전쟁과 폭력, 평화에 관련된 성경 구절

〈내용 및 활동〉

Play 2주

책을 한 권 정한다. 독서를 시작한다.

전쟁과 평화와 이교도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찾고 읽는다.

십자군 전쟁 관련 영화 2편을 보고 감상문을 작성한다.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담은 영상 4~5편을 시청한다.

Performance 3달

십자군의 역사에 관해서 공부한다.

특히 약탈과 같은 전쟁 범죄에 관한 내용은 빠짐없이 공부한다.

여러 사람들의 십자군 전쟁 관련 비판을 접하고 기록한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종교적 명분의 전쟁에 관련된 피해 상황 또한 공부한다.

폭력과 평화에 대한 설교를 찾아본다. 또,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교회에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설교 말씀을 찾아보고 시청하고 기록한다.

Practice 3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종교 전쟁에서의 모순점들을 찾고 나만의 비판문을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한다.

XII. 빛을 2단계를 돌아보며

빛을 2단계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활동들 위주였던 것 같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 현재 내 모습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변한 점이 많기는 많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루 하루를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등 좋다고 할 수 있는 변화들이 있기는 했다. 문제는 빛을 때 이후로 더이상의 뚜렷한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나의 모습은 빛을 1단계 기간에 비해 많이 무너진 모습이다. 좋은 습관들이 많이 사라져 있고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고민과 마음에 불편함, 걱정 등등이 날 괴롭혔었지만 빛을 수업들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 1차 빛을 몇 개월로 완벽하게 바뀌는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과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불안하기만 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한층 더 성장한 날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빛을 2단계를 통해 나를 돌아보며 나를 조금 더 잘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학교 생활을 할 때에 보다 더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나의 단점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두려워 하는 마음과 초반부터 결과를 얻길 바라는 마음이다. 내가 무언가 시도하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남들의 평가와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무도 나를 질타하지 않아도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며 욕을 한다고 오해와 착각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잘 해야만 마음이 편하다. 내가 처음부터 잘하길 원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곳은 드리미 학교이고 날 욕하거나 질타할 사람들이 없는 곳이며, 오히려 모두가 내 멘토인 곳이다. 날 돌아보며 내 짧은 학교 생활도 돌아보았는데, 내가 공동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제는 무언가 시도하는 것을 즐기는 내가 될 것이다.

내 장점은 사실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 나에게도 장점이 있을 것이다. 단지 그것들이 감추어져 있을 뿐이다. 그래서 나의 장점을 찾아가기 위해 노

력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다.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멀리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워야겠다.

나를 알아가는 것 말고도 빛음 2단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선배들과 함께했던 수업들이다. 자신의 성장 내용을 나눈 선배들도 있었고, 대위원회와 학생회에서 수업을 진행해 주기도 했다. 이 시간을 통해 배운 점과 느낀 점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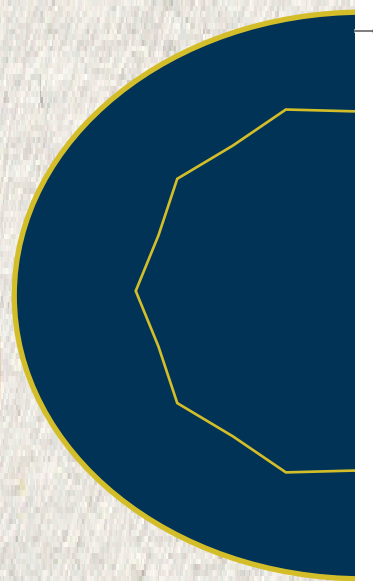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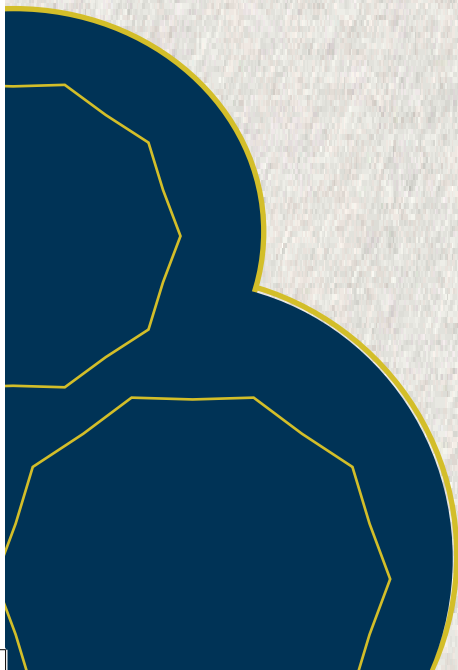
첫번째로 학교에서 성장을 경험한 선배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이때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때문에 너무 심하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다. 2기 선배들도 자신들이 무너지고 낙심하는 경험을 했었다고 한다. 그런 경험을 하고 이겨내어서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만일 우리 4기생들이, 내가 드리미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로 인해 좌절하지 말라고 했다. 내게 많은 도움이 되는 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협력에 관한 내용이다. 드리미 학교에 온 이상 ‘협력’은 꼭 배우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시면서 협력의 중요성과 장점을 말씀해 주셨다. 현재 사회성이 좋지 않은 내가 협력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협조와 양보를 하고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두번째 시간은 학생회에서 진행을 맡았다. 학생회는 공동체의 공동 목표, 즉 십자가의 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를 뭉치게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헌신과 희생의 중요성과 이 덕목의 장점 등을 말해 주었다. 드리미 학교는 신앙 공동체이고 이 공동체에 속한 난 내 신앙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느꼈다.

세번째 시간은 대위원회에서 진행을 해 주었다. 대위원회 선배님들은 책임감의 중요성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다. 아무래도 규정에 관련된 쪽이다 보니,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다고 하신다. 자신이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새 규정이 들어오면 뒤에서 욕을 먹기도 하고 야심 차게 규정을 준비해가면 선생님들로부터 논리적인 반박을 당해 좌절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래도 대위원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시며 책임감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은 대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하셨다. 나도 규정에 있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겠다. 돌아보니 빛음 2단계는 날 알아가는 시간 뿐 아니라 학교와 공동체도 알아가는 중요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FOR WHERE TWO OR THREE GATHER IN
MY NAME, THERE AM I WITH TH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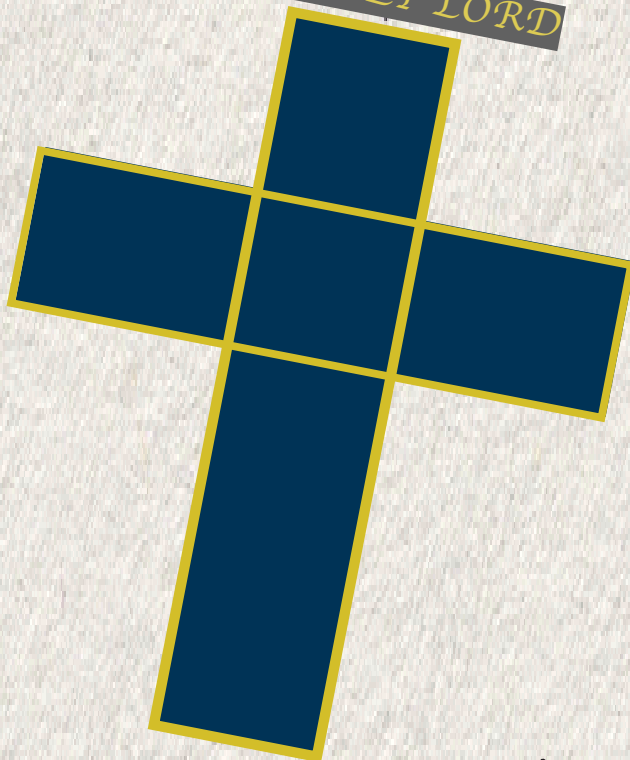
– MATTHEW 18:20 –



XIII. 나는 배웠다.

MY HOLY LORD

나를 괴롭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슬프게 했던
그 순간들이



큰 은혜였음을
축복이였음을
사랑이였음을
주님의 마음을
미약하게나마
나는 배웠다

나는 배웠다
세상이 외면하고
욕하는 죄인을
낙심하고 짚겨지
가장 낮은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내가 돌아가는 곳이
주님 밖에 있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